

지안공무원 안효선

現 지안에듀 국어 전임

現 빅모의고사 해설 위원



【총 평】

이론을 튼튼하게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변이음’, ‘공무도하가’, ‘어부사시사’, ‘유리창’ 등은 최근 여러 시험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었고 또 수업 때 분석한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공무도하가’는 이별과 관련된 고전 시가 작품을 설명하며, ‘물’의 의미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수업 때 함께 풀었으며, 정지용 작가의 ‘유리창’에서 죽은 아 이를 상징하는 시어를 찾는 연습도 하였습니다.

16번의 고유어 또한 이론반에 나누어진 결정적 고유어 프린트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론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 답】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①	①	③	②	③	③	④	②	②	①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①	④	④	①	④	③	③	②	③	③

-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소리의 강약과 고저는 분절되지는 않지만 소리로 의미를 구별할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소(비분절 음운)’로 분류하며 음운에 속한다.

- 최소 대립쌍은 음운을 찾아내는 기준이 되며, 작년도 수능 및 경찰직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 올해 1월 수업에서 설명하였다.
- 예를 들어 어두의 ‘ㄱ’은 외파음이지만, 어말의 받침 ‘ㄱ’은 파열을 하지 않는 내파음이다. 즉 ‘ㄱ’이라는 하나의 음운이 발음될 때 여러 변이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사람의 목청을 울려 내는 음성은 사람마다 조금씩 소리가 다른 구체적인 소리이지만, 음운은 그러한 음성의 특징을 추상화한 관념적인 소리이다.

2. 다음 문장 중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은?

- 금융 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정답: ①

해설: ①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내용이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적절하다.

- ② 작성 내용의 정정이 있거나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서술어의 부당한 생략)
- ③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피동 표현)
- ④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주어의 생략)

3. 속담과 한자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은?

- 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순망치한(脣亡齒寒)
- ②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하로동선(夏爐冬扇)
- ③ 우물 안의 개구리-하충의빙(夏蟲疑氷)
- ④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설중송백(雪中松柏)

정답: ③

해설: 속담은 우물에 앉아 세상을 보므로, 견문이 좁아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충의빙’은 여름의 벌레는 얼음을 믿지 않는다는 뜻으로 식견이 좁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 = 정중지와(井中之蛙)
- = 정저지와(井底之蛙)
- = 좌정관천(坐井觀天)

- ① 속담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하여 그럭저럭 산다는 뜻이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밀접한 사이에 있는 어느 쪽이 망하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아 어렵다는 뜻이다.
- ② 속담은 흔한 물건도 막상 필요할 때 구하려면 없다는 뜻이다. ‘하로동선’은 여름에는 화로 겨울에는 부채라는 뜻으로, 철에 맞지 않거나 쓸모없는 사물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 ④ 속담은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제 구실을 한다는 뜻이다. ‘설중송백’은 눈 속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말하며, 눈이 오는 중에도 색이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의미한다.

4. <보기>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 ① 가는허리 / 잔허리
- ② 고깃간 / 정육간
- ③ 관계없다 / 상관없다
- ④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정답: ②

해설: ‘고깃간’의 다른 말은 ‘푸줏간’이다. ‘정육간’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이며, 현대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파는 곳은 ‘정육점’이다.

5. <보기>의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오죽헌 Ojukeon
- ㄴ. 김복남(인명) Kim Bok-nam
- ㄷ. 선릉 Sunneung
- ㄹ. 합덕 Hapdeok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③

해설: 성과 이름은 띄어 쓰며 이름 사이에는 붙임표를 적을 수 있으므로 ㄴ은 적절한 표기이다. ‘합덕’에서 파열음이 자음 앞 또는 어말에 쓰인 경우는 무성 파열음으로 적고, 파열음이 모음 앞에 쓰인 경우는 유성 파열음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ㄹ은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해설

ㄱ. ‘Ojukheon’이 올바른 표기이다. 체언에 있어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날 때 ‘ㅎ’을 밝혀 적어야 한다.

ㄷ. 우리나라의 로마자 표기법은 전용법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해야 하는데, ‘선릉’은 [설릉]으로 소리 난다. 따라서 ‘Seolleung’이 올바른 로마자 표기이다.

6.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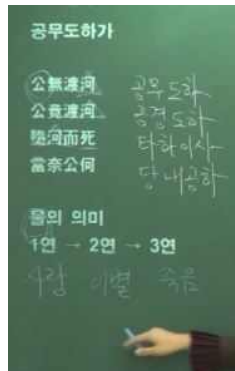
- ①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사시다.
②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다.
③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이 변치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1연에서 ‘물’은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가리키며, 2연에서 임이 물을 건너므로 이때의 물은 ‘이별’을 가리킨다. 3연에서 ‘물’은 임의 ‘죽음’을 가리킨다. 수업 내용 적중

오답해설

이론 수업 및 1월 문제 풀이반 때 설명한 <공무도하가>는 최고의 서정시이며, 한시로 『해동역사』에 실려 있다.
<공무도하가>는 ‘충성’이 아닌 ‘임을 여윈 슬픔’을 다룬 작품이다.



7. <보기>의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임 그린 상사몽이 ㉠실솔의 냇이 되어
가을철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나) 이 몸이 죽어져서 ㉡접동새 냇이 되어
이화 핀 가지 속잎에 싸였다가
밤중만 살아서 우리 임의 귀에 들리리라.

- ① ㉠은 귀뚜라미를 뜻한다.
② (가), (나)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은 울음소리가 돌아갈 귀(歸), 촉나라 촉(蜀), ‘귀촉 귀촉’으로 들려 귀촉도라고도 한다.
④ (가), (나)의 작가는 모두 미상이다.

정답: ④

해설: (가)는 박효관의 시조이며, (나)는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시조이다.

(가) 해석

임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이 귀뚜라미의 냇이 되어
긴 가을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어가서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귀뚜라미’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로 화자의 마음을 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나)에서 ‘접동새’는 고전 시가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 우는 소리가 ‘귀촉도’로 들려 ‘귀촉도’라고도 부르는 새이다. 접동새는 ‘두견새’로도 불리며, 봄밤에 운다.

8.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가팔라서 여러 번 쉬었다.
② 예산이 100만 원 이상 모잘라서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③ 영혼을 불살라서 이론 깨달음이니 더욱 소중하다.
④ 말이며 행동이 모두 올발라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정답: ②

해설: ‘르’ 불규칙을 묻는 문제이며, ‘가파르다’, ‘불사르다’, ‘올바르다’는 모두 어간 말음이 ‘르’로 끝나는 ‘르’ 불규칙이다. 그러나 ②의 기본형은 ‘모자라다’이며 따라서 ‘모자라서’와 같이 활용한다.

1월 수업 내용 적중

9.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장(延長)’, ‘하산(下山)’은 ‘서술어+부사어’의 구조이다.
② ‘인간(人間)’,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 ③ '우정(友情)', '대문(大門)'의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④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정답: ②

해설: '인간'에서 '인'은 어근이지만, '한국인'에서 '-인'은 접사이다.

① 연장: 길게 늘이다.

하산: 산에서 내려가거나 내려오다.

③ '우정(友情)'에서 '우'는 어근으로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비자립적이다. '정'은 홀로 단어로 쓰일 수 있다. '대문(大門)'에서 '대'는 비자립적 어근이며, '문'은 홀로 단어로 쓰일 수 있다.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② 데칸 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③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 만큼 자랐구나!
 ④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만들기를 하였다.

정답: ①

해설: '물속'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② '데칸고원'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붙여 쓴다.

③ 이때의 '만큼'은 보사이므로 체언 뒤에 붙여 쓴다.

④ '쓸모없다'는 붙여 쓰지만, '쓸모 있다'는 띄어 쓰는 게 올바르다. 그러나 '주머니 만들기'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11.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떠내려갔다 ② 따라 버렸다
 ③ 빌어먹었다 ④ 여쭙어봤다

정답: ①

해설: 떠내려갔다 (뜨--+어+내리--+어+가--+았--+다, 총 7개)

② 따라 버렸다(따르--+아+버리--+었--+다, 총 5개)

③ 빌어먹었다(빌--+어+먹--+었--+다, 총 5개)

④ 여쭙어봤다(여쭙--+어+보--+았--+다, 총 5개)

12.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것은?

- ① 묻다(問) ② 답다(暑)
 ③ 낫다(愈) ④ 놀다(遊)

정답: ④

해설: '놀다'는 활용할 때 '놀고, 놀아, 놀아서'와 같이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놀다'의 어간 말음이 탈락하는 '논, 논니다'와 같은 경우, 'ㄹ'이 탈락하는 규칙 활용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① 묻다 → 물어, 물으니, 물었다. 'ㄷ 불규칙'

② 답다 → 더워, 더우니, 더웠다. 'ㅂ 불규칙'

③ 낫다 → 나아, 나오니, 나았다. 'ㅅ 불규칙'

규칙과 불규칙은 형태론 문제로 자주 출제되어 문제 풀이 반 때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었다. 특히 'ㅡ'탈락과 'ㄹ' 탈락은 규칙 활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3.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하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恨(한)하노라.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짜해 낫드니.

- ①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이다.
 ②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③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④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작가는 사육신의 한 명인 성삼문이며, 단종을 섬기던 성삼문의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는 시조이다. '수양산'은 백이와 숙제가 숨어 있던 중국의 산을 지칭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수양대군을 상징할 수도 있다. '백이와 숙제'라는 중국의 고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나 복수를 다짐하는 부분은 없다.

14. <보기>의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국國총 至지국國총 於어思스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갈 고기 뛰노느다.

년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藥笠笠은 씨 잇노라, 綠綠蓑蓑衣의 가져오나.

至지국國총 至지국國총 於어思스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좇느가 제 좇느가.

- 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③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 6구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강호한정가)을 노래한 연시조이다.

이 작품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이며 계절별로 10수 총 40수의 연시조이다. 이현보의 '어부가'의 영향을 받았다.

- ② '우는 거시 벽구기'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우는 거시 벽구기'와 '프른 거시 버들습가'가 대구를 이루며, '청약립은 씨 잇노라'와 '녹사의 가져오나'가 대구를 이룬다.
- ④ 후렴구 '至지국國총 至지국國총 於어思스臥와'를 제외하면 3장 6구의 시조 형식을 띤다.

15. <보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는?

<보기>

쉴 실은 천리마(千里馬)를 알아 볼 이 님 있으리

십년(十年) 역상(轡上)에 속절없이 다 늙도다

어디서 살진 쇠양마(馬)는 외용지용 하느니

- ① 髀肉之嘆 ② 招搖過市
- ③ 不識泰山 ④ 麥秀之嘆

정답: ④

해설: 김천택의 시조로, '쉴'과 같이 보잘것없는 땀감을 실은 말은 천리마라도 알아보는 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며(허송세월을 한탄), 아둔한 쇠양마가 득세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④이다. ④의 맥수지탄은 나라를 잃은 탄식을 말한다.

- 천리마: 하루에 천 리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말
- 쇠양마: 성질이 온순하지 못하여 가다가 땅에 잘 뒹구는 말

16. 어휘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 ②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 ③ 안다미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 ④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가며 살피다

정답: ③

해설: '안다미로'는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1월 이론 수업 기출 고유어 정리에서 출처되었으며 해당 파일은 cafe.daum.net/verylucky1718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7. <보기>는 「훈민정음언해」의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랏 말싸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몫디 아니 흘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흙 배이셔도 ㅁ춤내 제 ㅍ들 ㅅ리려 퍼디 ㅁ흔흙 노미 하니라
내 이룰 爲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들字를 ㅁ
ㅈ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ㅍ뎌 便安키
호고져 ㅁ 썩르미니라

- ① <보기>는 한 문장이다.
- ② 밑줄 친 '시려'는 한자 '載'에 해당한다.
- ③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④ 'ㅈ'와 'ㅅ'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정답: ③

해설: <보기>는 「훈민정음언해」의 서문에 해당하며 ‘훈민정음’ 창제한 목적을 세종대왕이 밝힌 글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내’는 세종대왕 자신을 가리킨다.

- ① 현대 국어와 같이 ‘이다’라는 형태가 보이지 않아 한 문장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랏 ~하니라’와 ‘내 이를~ 썩르미니라’의 총 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시러’는 현대어로 ‘능히’로 해석되는 단어이다. 한자로는 ‘득(得)’에 해당한다. ‘載’는 ‘실을 재’이다.
- ④ 중세 때 ‘ㅏ’와 ‘ㅑ’는 음가가 달랐으며 또한 의미 구별을 자질을 가지는 음운이다. ‘ㅑ’는 원순 저모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 <보기>의 밑줄 친 시어 가운데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보기>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련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디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늑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① 차고 슬픈 것 ② 새까만 밤
- ③ 물먹은 별 ④ 늑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모두 죽은 아이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또한 ‘언 날개’, ‘산새’도 죽은 아이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그러나 ‘새까만 밤’은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19. <보기>의 지문은 설명문의 일종이다. 두괄식 설명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논리적 전개에 가장 부합하게 배열한 것은?

<보기>

- ㉠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 한다. 띄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 ㉡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이다.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 ㉢ 띄어 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남자가 아주 멋지다.’라는 문장에서 ‘그 남자가’와 ‘아주 멋지다’는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해설: ㉡은 문장의 정의이며 ㉠은 문장의 구성 요소를 정의한다. 따라서 ㉡이 ㉠보다 먼저 배열되어야 하며, ㉢은 ㉠에서 정의한 어절을 이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을 설명하였으므로, ㉠의 어절 정의가 ㉢보다 먼저 배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20. <보기>의 설명에 활용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明德)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① 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뉜다.
- ②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 ③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로 무지개 색깔을 가리키는 7가지 단어에 의지하여 무지개 색깔도 7가지라 판단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④ 곤충의 머리에는 겹눈과 홑눈, 더듬이 따위의 감각 기관과 입이 있고, 가슴에는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가 있으며, 배에는 끝에 생식기와 꼬리털이 있다.

정답: ③

해설: 이 글에서는 유학자들이 자기뿐 아니라 치국도 중시 여긴다고 설명하며 그 예로 ‘주희’와 ‘정약용’을 들고 있다. 또한 ‘주희’와 ‘정약용’을 대조하고 있다. 선지에는 대조가 없으므로 예시를 사용한 선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다.

① 구분, ② 비유, ④ 분석

어휘 자료는 '안효선 국어 연구소'를 다음에서 검색 또는 아래 주소에 가입해 주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fe.daum.net/verylucky1718



또한 카카오톡에서 ‘안효선국어’를 검색하시면 개강 및 유튜브 영상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